U+프로야구 SK텔레콤, KT 고객도 U+프로야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ONE스토어/Play스토어에서 [U+프로야구] 다운로드 받으세요

선수들 자신감 UP '하이브리드 잔디' 적응 문제없다

신태용호 마지막 과제는 '인조+천연잔디'

볼 반발 적고 슬라이딩 유리 … K리거 적응 관건

호날두 해트트릭 세계 최고의 공격수 포르투갈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지난 15일(현지시간) 러시아 소치 피시트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 러시아월드컵 B조 1차전 스페인과 경기에서 페널티킥(왼쪽 부터), 중거리 슛, 프리킥으로 해트트릭을 기록한 뒤 각각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 러시아월드컵 첫 경기를 이틀 앞두고 결전지 니즈니노브고로드에 도착한 한국 축구대표팀의 신태용 감독은 선수들의 자신감이 상승했다며 나아진 팀 분위기를 전했다.

신 감독은 16일 오후(현지시간) 니즈니노브고로드 현지 숙소인 쿨리빈 파크 호텔에 도착해 "오스트리아에서는 버스로 장시간 이동하는 등 피곤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었지만,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오면서 컨디션 조절을 잘하며 훈련이 생각보다 잘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수들이 자신감이 붙다 보니 표정이 밝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17일 공식훈련과 기자회견에 나선 대표팀은 18일 오후 3시(한국시간 오후 9시) 스웨덴과 조별리그 F조 첫 경기를 치른다.

이번 조별리그에서 디펜딩 챔피언 독일을 비롯해 강팀들과 엮인 한국 입장에서 스웨덴과의 첫 경기는 16강 진출 여부를 가늠할 중요한 한 판이다.

이달 초부터 오스트리아 사전캠프에서 전술과 조직력을 다듬어 온 대표팀은 현지에서 치른 두 차례 평가전에서 득점 없이 1무 1패에 그치며 우려를 낳기도 했다.

하지만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점차 몸 상태와 정신력을 가다듬으며 결전 준비를 마쳤다.

신 감독은 "로드맵에 있는 훈련을 진행했고, 순조롭게 잘 마무리했다고 보시면 되겠다"고 자신감을 드러내며 선전을 다짐했다.

결전의 무대에 오르는 신태용호의 마지막 과제는 '잔디'가 될 전망이다.

한국 대표팀은 17일 스웨덴전이 열릴 노브고로드 스타디움에서 1시간가량 공식훈련을 진행했다.

스웨덴과 1차전을 앞두고 태극전사들이 경기장의 잔디를 접할 기회는 이 공식 훈련 시간이 전부다.

선수들은 이번 러시아 월드컵이 치러지는 12개 경기장에 식재된 하이브리드 잔디를 처음 경험하게 된다.

하이브리드 잔디는 천연잔디의 활착력을 높이려고 곳곳에 인조잔디를 보강한 복합형 잔디다.

하이브리드 잔디는 천연잔디보다 그라운드 표면이 균일하기 때문에 볼 반발이 적고, 슬라이딩에 좋은 것으로 알려졌다.

골키퍼는 슈팅한 공이 그라운드에 바운드됐을 때 천연잔디 구장보다 상대적으로 빠르게 날아오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

대표팀 선수 중 미드필더 정우영은 소속팀 빗셀 고베의 홈구장이 일본 J1리그 구단 중 유일하게 하이브리드 잔디로 돼 있어 이 잔디에 익숙하다.

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첼시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맨체스터 시티 등 주요 클럽 홈구장과 영국의 축구 성지인 웸블리 스타디움이 하이브리드 잔디 구장이라서 한국인 프리미어리거 손흥민(토트넘)과 기성용(스완지시티)도 적응에 큰 어려움이 없다.

다만 천연잔디에서만 경기했던 한국 K리거 출신 선수들은 하이브리드 잔디가 다소 생소할 수 있다. /연합뉴스

아이슬란드 '얼음벽' 메시를 얼리다

아이슬란드 수비진 5명이 16일(현지시간) 모스크바 스파르타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러시아월드컵 D조 아르헨티나와의 경기에서 리오넬 메시(10)를 막기 위해 주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뜨거웠던 월드컵 본선 데뷔전

점유율·슈팅서 뒤지고도

우승 후보 아르헨과 1-1

메시 패널티킥 막은 골키퍼

'맨 오브더 매치' 선정

'불과 얼음의 나라' 아이슬란드가 월드컵 축구대회 본선 데뷔전을 뜨겁게 달궜다.

아이슬란드가 세운 '얼음벽'에 막힌 아르헨티나의 분위기는 차갑게 식었다. 세계 최고의 공격수 리오넬 메시(바르셀로나)도 아이슬란드 골문을 열지 못했다.

아이슬란드가 2018 러시아월드컵 초반, 최대 이변을 만들었다.

처음 월드컵 본선 무대를 밟은 아이슬란드가 17번째 본선 무대에서 3번째 우승을 노리는 아르헨티나와 무승부를 이뤘다.

아이슬란드는 지난 16일 열린 2018 러시아월드컵 D조 첫 경기에서 아르헨티나와 1-1로 비겼다.

유로 2016년 8강에서 아이슬란드가 쓴 '얼음 신화'의 여운이 월드컵 무대로 이어졌다.

아이슬란드는 역대 월드컵 본선 진출국 중 가장 인구가 적은 나라다. 이 곳에는 현재 약 34만 명이 거주한다. 유로 2016전까지는 축구에서도 '변방 국가'로 분류됐다.

그러나 처음 출전한 유로 2016에서 '축구 종가' 잉글랜드를 꺾고 8강에 진출하는 파란을 일으켰다. 아이슬란드는 이번엔 남미의 축구 강호 아르헨티나의 발목을 잡았다.

양 팀 모두 승점 1을 얻었지만, 아이슬란드가 얻은 게 더 많다.

아이슬란드는 본선 데뷔전에서 역사적인 첫 번째 득점(전반 23분 알프레드 핀보가손)을 얻었고, 승점마저 따냈다.

후반 18분 메시의 페널티킥을 막는 등 아르헨티나의 파상 공세를 견뎌낸 골키퍼 하네스 할도르손은 '맨 오브더 매치'(MOM)에 선정됐다.

슈퍼스타가 즐비한 아르헨티나로서는 더 자존심이 상하는 사연이다.

아르헨티나는 점유율에서 72%-22%로 압도했고, 슈팅에서도 26-9로 크게 앞질렀다. 아르헨티나가 713번의 패스를 시도하는 사이, 아이슬란드는 188번의 패스만 했다. 그러나 실리는 아이슬란드가 챙겼다.

이번 대회에서 월드컵 본선 무대에 데뷔하는 나라는 아이슬란드와 파나마 두 팀뿐이다. 내심 아르헨티나는 아이슬란드와의 조별리그 첫 대결 편성을 만족해했지만 1-1 무승부에 그쳤다. /연합뉴스

'보통 사람'들이 만드는 기적

아이슬란드 선수들, 치과의사·영화 감독 등 경력 다양

아이슬란드 축구대표팀 수비수 비르키르 사이바르손(34)은 특이한 이력을 가진 선수다.

사이바르손은 2018 국제축구연맹(FIFA) 러시아월드컵에 출전하기 전까지 아이슬란드 수도 레이캬비크 인근의 산업지구에 있는 소금 포장 공장에서 일했다.

전체 인구가 약 35만 명에 불과한 아이슬란드는 프로축구 리그가 없어 본업이 따로 있는 선수가 많다.

아이슬란드 대표팀 헤이미르 하들그림손 감독은 치과의사 출신으로, 취미 삼아 아마추어 축구선수 생활을 병행하다 국가대표 감독 자리까지 올랐다.

영화감독이었던 골키퍼 하도스 할도르손은 뮤직비디오 제작에 전념하기 위해 6년 전 은퇴했다가 복귀하기도 했다.

'보통 사람'들이 모인 아이슬란드는 처음 출전한 월드컵 첫 경기에서 기적의 드라마를 연출했다.

지난 16일 열린 아르헨티나와 D조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강한 투지와 집중력으로 1-1 무승부를 일궈냈다.

기적을 만든 '보통 사람들'의 아이슬란드는 경기 후 눈에 띄는 세리머니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줬다.

선수들은 경기장을 찾은 3000명 남짓한 아이슬란드 축구팬들에게 다가가 감사 인사를 전했다.

워낙 인구가 적은 탓에 아르헨티나처럼 대규모 응원단을 꾸리진 못했지만, 아이슬란드 응원단은 경기 내내 큰 목소리로 자국 선수들에게 큰 박수를 보냈다.

선수들은 소수정예로 맞선 자국 응원단에게 감사 인사를 잊지 않았다.

상대 팀 리오넬 메시를 무득점으로 꽁꽁 묶은 '소금공장 직원' 사이바르손은 자신이 입고 있던 유니폼과 축구화를 벗어 관중들에게 선물했다.

윗옷을 벗고 슬리퍼 차림으로 돌아오는 사이바르손의 얼굴엔 웃음기가 가득했다.

사이바르손은 경기 전 "아이슬란드를 위해 뛰는 건 내 가족, 내 친구를 위해 뛰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프랑스 '과학의 힘'으로 첫 승

'비디오 판독' 페널티킥·골라인 테크놀로지로 호주에 2-1 승

프랑스가 '과학의 힘으로' 2018 러시아 월드컵 축구대회 첫 경기에서 승리했다.

프랑스는 지난 16일 러시아 카잔의 카잔 아레나에서 열린 2018 국제축구연맹(FIFA) 러시아월드컵 C조 첫 경기에서 고전 끝에 호주를 2-1로 눌렀다.

첫 경기 결과를 걱정했던 프랑스는 우승 후보의 자존심을 지켰다. 과학이 만든 '정확한 눈'이 프랑스를 도왔다.

0-0의 균형을 깨지 못하던 프랑스는 후반 10분께 폴 포그바(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날카로운 패스로 호주 수비진을 뚫으려 했다.

앙투안 그리에즈만(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은 한 차례 볼을 터치하며 페널티 박스 안쪽으로 달려갔고, 조시 리즈던의 발에 걸려 넘어졌다. 하지만 주심은 휘슬을 불지 않았다.

디디에 데샹 프랑스 감독이 항의를 하자 VAR 전담 심판진은 주심에게 사인을 보낸 뒤 비디오 판독을 시작했다.

심판은 곧바로 판정을 번복해 페널티킥을 선언했다. 리즈던의 오른발에 그리에즈만의 왼발이 걸리는 장면이 보였다.

월드컵 사상 처음 나온 비디오 판독(VAR)이었다.

FIFA는 러시아월드컵부터 ▲득점 장면 ▲페널티킥 선언 ▲레드카드에 따른 직접 퇴장 ▲다른 선수에게 잘못 준 카드 등 네 가지 상황에서 비디오 판독을 시행하기로 했다.

그리에즈만은 후반 13분 VAR로 얻은 페널티킥을 침착하게 넣었다.

호주도 4분 뒤 페널티킥을 얻어 1-1 동점을 만들었다. 한 골이 간절했던 프랑스는 또 한 번 '과학의 힘'을 빌렸다.

포그바는 후반 36분 상대 골키퍼 매슈 라이언을 넘기는 슈팅을 시도했다. 공은 크로스바를 받고 골라인 근처에 떨어졌다.

호주 선수들은 손을 흔들며 "골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주심은 주저하지 않고 '골'을 선언했다.

골라인 테크놀로지 덕이다. 골라인을 다각도로 비추는 카메라가 공이 라인을 넘어갔는지를 확인한 뒤, 주심에 전달했다.

골라인 테크놀로지는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처음 도입했다. 하지만 실제 골라인 테크놀로지로 득점 여부를 확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뉴스

앗! 실수

자책골·핸드볼 반칙에 '눈물'

지난 15일 개막한 2018 국제축구연맹(FIFA) 러시아월드컵에서 승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실수들이 연달아 나오고 있다.

먼저 16일 열린 이란과 모로코의 경기에서는 후반 추가 시간에 나온 자책골이 승부를 갈랐다.

경기 내내 주도권을 잡고 이란을 몰아세우던 모로코였지만 후반 50분 프리킥 상황에서 아지즈 부핫두즈의 헤딩 자책골 때문에 0-1로 졌다.

부핫두즈는 공을 머리로 걷어내려다가 자기편 골문 안으로 보내고 말았다.

월드컵 사상 후반 추가 시간에 자책골이 나온 것은 이번이 세 번째인데 결승골이 된 것은 이날 부핫두즈가 처음일 정도로 큰 실수였다.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경기에서는 스페인의 골키퍼 다비드 데헤아가 아쉬운 장면을 연출했다.

전반 44분 포르투갈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중거리 슛은 데헤아가 막아낼 수도 있는 공이었다.

데헤아는 엉거주춤한 자세로 땅볼 슛을 처리하려다가 공이 몸을 맞고 골문 안으로 향하하면서 '명 수문장'의 명성에 흠집을 냈다.

결국 3-3으로 비긴 스페인으로서는 데헤아의 실수만 없었더라면 이길 수도 있었고, 결과적으로 호날두의 해트트릭도 나오지 않았을 터다.

프랑스와 호주 경기에서는 프랑스 사뮈엘 움티티가 어이없는 핸드볼 반칙으로 페널티킥을 내주는 장면이 나왔다.

프리킥 상황에서 움티티는 만세를 부르는 듯한 동작으로 점프하다가 공을 손으로 건드렸다. 결국 1-0으로 뒤지던 호주는 밀레 예디낙의 페널티킥으로 동점을 만들었다.

/연합뉴스